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오윤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PASW(SPSSWIN 20.0)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적용된 주요 통계기법으로는 빈도분석, F-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었다.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성숙도 및 회복탄력성과 용서의 관계에는 모두 유의 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용서의 전체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용서경험을 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지수가 높을수록 용서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용서경험을 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 기독교 대학생들의 용서지수 증진을 위해서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이 용서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서로 각각의 변수는 상호적으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 기독교 대학생, 영향력

• 논문 투고일: 2015년 10월 12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2일

*한국성서대학교

I. 여는 글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확립 및 친밀감형성 등과 같은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담과 더불어 불안정한 가족구조 및 갈등 사회 구조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다.¹⁾

따라서 대학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의 주 호소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인관계 문제임을 알 수 있다.²⁾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부당하게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대처방식이 동원되었지만 가장 적극적인 자기회복과 자기치유의 방법으로는 용서가 권장되고 있음을 본다.³⁾ 용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슬픔, 불안, 분노 및 복수나 처벌하려는 열망을 줄여주고, 개인의 안녕을 회복시켜주는 자기치유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⁴⁾ 용서는 타인에 대한 도덕적

1)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31-32.

2) 박수정 · 탁진국,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제23권 (2014): 1-22.

3) M. E. McCullough, J. J. Exline & R. F. Baumeister,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earch on Forgiveness and Related Concepts,”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s*, ed. E. L. Worthington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193-317.

4) R. D. Enright, E. A. Gassin & C. Wu, “Forgiveness: A Development View,” *Journal of Moral Education* 2(1992): 99-114; D. Hope, “The Healing Paradox of Forgiveness,” *Psychotherapy* 24(1987): 240-244; R. D. Enright & R. P. Fitzgibbons,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PA, 2000), 107-126.

실천방안을 넘어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⁵⁾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가해나 상처에 대한 대응적인 대처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⁶⁾ 용서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재창조적인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⁷⁾

하지만 용서는 인간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으나 용서의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기에 용서를 위한 지속적인 신앙 및 인격 성숙이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하겠다. Emile Durkheim과 Willard Allport는 종교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⁸⁾

종교 심리학자들의 용서에 대한 현상학적 관심은 1930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보면, 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면 신학적 접근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뚜렷하기에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⁹⁾

특히 용서와 관련하여 신앙 및 심리적 긍정 자원을 통합하여 실시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에게 용서의 적극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지역

5) 박종효,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2호(2003): 301-321.

6) E. L. Worthington & M. Scherer, “Forgiveness is a 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that can Reduce Health Risks and Promote Health Resilience: Theory, Review and Hypotheses,” *Psychology and Health* 19, no 3(2004): 385-405.

7) L. Gregory Jones, *Embodying Forgiveness: A Theological Analysi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133-134.

8) 홍구화,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용서들: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 (2013): 357-372.

9) 오오현,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6권 1호(2005): 287-303.

성을 뛰어 넘어 폭넓은 대상에게 적용한 연구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서울 경기 및 주요 지방도시교회와 기독교 대학생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통해서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용서를 통한 행복감정의 증진을 통한 부정감정 치료적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 및 회복탄력성과 용서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신앙성숙도 개념 및 선행연구

(1) 개념적 이해

신앙성숙도에 대한 개념이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개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종교인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어 왔고, 둘째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종교인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었음을 본다. 전자가 성경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되어 왔다면, 후자는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심리학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리고 신앙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상담 영역에서는 이 둘을 분리가 아닌 통합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신앙성숙에 관한 성경 신학적 이해와 종교심리학적 이해를 살펴보면, 첫째, 신앙성숙에 관한 성경신학적 이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됨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한 것이다. 신앙성숙에 가장 근접한 성경적 개념은 ‘거룩’, ‘성결’, ‘완전’, ‘온전’ 등의 개념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학적 개념은 성화(sanctification)라 할 수 있고, 성화는 사람을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¹⁰⁾ 따라서 구약에서는 계명을 지킬 때(출 19:6, 19:2, 20:26) 거룩해질 수 있음을 의미 하였다.¹¹⁾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됨으로 거룩한 자 즉,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¹²⁾

둘째, 신앙성숙에 대한 종교 심리학적 이해는 James Fowler와 James Loder를 중심으로 한 발달론적 접근과 Mary J. Meadow와 Richard D. Kahoe 및 Allport¹³⁾를 중심으로 하는 표지론적 접근(signical approach)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발달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신앙행동과 경험에 대한 파편화와 구조화에 집중함으로써 단편적이고 작위적인 신앙성숙에 대한 개념이해를 하였다. 표지론적 접근자들은 신앙성숙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보완적 관점을 전제로

10)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315.

11) 김균진, 『조직신학 II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265.

12) J. I. Packer, *Knowing God*, 서문강 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275.

13) G. W. Allport,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66): 447-457.

신앙행태나 표지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전인적 관점에서 통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표지론적 접근을 통하여 신앙성숙을 정의한 종교심리학자 Allport는 “신앙성숙은 인간의 지·정·의가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개인의 체험과 실존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였다.

셋째, 기독교 통합적 관점에서 신앙성숙도를 정의하면, 신앙성숙도란 성경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행위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면을 포함하는 신앙의 정도를 말한다고 하겠다.¹⁴⁾

(2) 선행연구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M. C. Smith¹⁵⁾와 이상순¹⁶⁾의 불안감소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부터 한재희¹⁷⁾의 우울감소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고, 이유리¹⁸⁾의 삶의 만족도와 정진방¹⁹⁾의 스트레스 감소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 전후로는 신앙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에 관한 연구들이 강계남,²⁰⁾ 이정

14) 이억범,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제17권 (2013): 93-110.
 15) W. C. Smith, *Faith and Belief*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23-67.
 16) 이상순, “고등학생의 기독교 경험 및 불안과 자아 기능”(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17-23.
 17) 한재희,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삶의 의미와 종교적 만족도”(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2), 67-72.
 18) 이유리, “기독교사의 신앙성숙 수준과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2002), 56-68.
 19) 정방진, “성숙신앙인과 기복신앙인의 스트레스와 갈등 대처 양식: 기독교 대학생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1997), 51-72.
 20) 강계남, “신앙성숙 척도의 타당도 검증: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제17권 제1호 (2004): 141-163.

수²¹⁾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신앙성숙도와 관련해서는 종교심리학 및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강희천,²²⁾ 최창국,²³⁾ 박향숙²⁴⁾ 등에 의해서 연구가 실시되었음을 본다. 이는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다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신앙성숙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성격에 입각한 심리학적 이해를 통한 통합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회복탄력성 개념 및 선행연구

(1) 개념이해

회복탄력성의 영어 표기 resilience는 라틴어의 resiliens에서 유래된 용어로 원래 물체의 신축성 혹은 유연한 성질을 일컫는데서 사용되어 왔다. 1990년 이후 ‘resilience’는 국내에서 ‘심리적 건강성’²⁵⁾ ‘유연성’²⁶⁾, ‘회복력’²⁷⁾, ‘탄력성’²⁸⁾, ‘회복탄력성’²⁹⁾, ‘자아탄력성’³⁰⁾ 등 다양하게

-
- 21) 이정수, “신앙성숙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교육목회적 접근”(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9), 21-78.
 - 22) 강희천, “종교심리학의 연구동향”,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제30권 (2002): 353-391.
 - 23) 최창국, “신앙발달의 유형과 기독교교육”, 개신대학원 대학교, 「개신논집」 제6권 (2006): 273-301.
 - 24) 박향숙, “문화권에 따른 파울리의 신앙발달이론 연구 경향 비교 연구”, 서울신대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와 교육」제13권 (2006): 105-134.
 - 25) 이완정,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상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2): 1-16.
 - 26) 서지영,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연성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2): 7-56.
 - 27) 김혜성, “회복력(Resilience)개념 개발”(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7), 5-95.
 - 28) 홍은숙,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학연구」 제41권 2호(2006): 45-67.
 - 29) 김주환 · 신우열 · 최민아,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6권 3호(2009): 117-148.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다.

Resilience가 우리나라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으로 일반화된 것은 김주환³¹⁾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S. Luthar³²⁾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으면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거나 잘 대처하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탄력의 개념화 및 연구의 중요 개척자 N. Garmezy³³⁾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의지력이 소실됐지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D. Wright, A. Masten과 J. Narayan³⁴⁾은 회복탄력성을 위협 또는 역경을 직면했을 때 역동적으로 견디거나 이전상태로 복구되는 긍정적 적응이라고 정의하였고, Q. Gu와 C. Day³⁵⁾는 역동적 과정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주환³⁶⁾의 정의를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며,

30) 강연정,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 (2012): 51-52.

31) 김주환,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 하우스, 2011), 34-62.

32) S. S. Lutha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no. 3(1991): 600-616.

33) N. Garmezy,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1993): 127-136.

34) M. O. D. Wright, A. S. Masten & A. J. Narayan,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Four Waves of Research on Positive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in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eds. S. Goldstein & R. B. Brooks (New York: Springer, 2013): 15-37.

35) Q. Gu & C. Day,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 (2007): 1302-1316.

36) 김주환, 『회복탄력성』, 56-72.

또한 위기나 역경을 디딤돌과 같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인지능력, 즉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을 의미한다.

(2) 선행연구

회복탄력성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70년대에 Norman Garmezy에 의해 이루어진 'Project Competence' 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정신분열증의 특성과 기원에 대해 연구하던 중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회복탄력성 연구의 전조가 되었다.³⁷⁾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실제적인 초기연구는 Emmy Werner와 Ruth. Smith³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Werner와 Smith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카우이섬에 태어난 아동 중 가정환경과 양육환경이 열악한 아동 201 명을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종단연구를 한 결과, 연구대상 아동의 1/3에 해당되는 72명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양육환경에 상관없이 유능하고 따뜻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였다. 긍정적으로 적응하여 성장한 72명의 공통된 특성을 분석하면서 회복탄력성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1980년대부터는 개인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게 되었다.³⁹⁾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개인의 특성만으로는 탄력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외부적 여건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고,⁴⁰⁾ 가변적인 특성에 관한

37) A. S. Masten & J. L. Powell, "A Resilience Frame Work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Contributions from Project Competence," in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ed. S. S. Luth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6): 1-28.

38) E. Werner & R. Smith,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ce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1982), 78-85.

39)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8), 86-95.

40) 허운영,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12), 13-62.

연구⁴¹⁾와 적응성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⁴²⁾

3) 용서의 개념이해와 선행연구

(1) 개념이해

용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⁴³⁾ ‘용서’는 ‘잘못한 것만큼 보복하려는 감정을 멈추는 것’, ‘가해자에게 보복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사면하는 것, 용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 사전⁴⁴⁾에서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끝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서는 그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 철학, 윤리, 문화, 신학 등의 인간생활 전반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어 온 주제이지만 그 의미를 단순하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⁴⁵⁾

1990년 이후 용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가 됨으로 용서에 대한 의미는 더 다양해졌음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적 의미와 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서의 기독교적 의미

용서의 기독교적 이해는 성경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성경적 측면에서 용서의 일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41) 김주환, 『회복탄력성』, 82-97.

42) 이신숙,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2013), 10-85.

43)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mpany, 1976), 892.

44) 두산동아 편집부, 『새 국어사전 5판』 (서울: 두산동아, 2008), 142.

45) H. T. Trindis,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1996): 407-415.

인간을 분리시키는 장애나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거해 주심으로써 화해와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인간의 용서를 의미한다. 신구약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예시와 권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용서하다’로 직접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סָלַח(salah) (레4:20,26; 왕상8:30,34; 시86:5; 103:3 등)는 46회,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되는 טָהַר(taher) (창35:2; 왕하5:13 등) 94회, ‘불쌍히 여기다’ רָחַם(racham) (겔39:25; 사55:7 등)은 47회 사용되면서 구약성경에서의 용서는 ‘형벌에 대한 면제’라기 보다 ‘하나님과 용서받은 사람 사이의 화목’에 초점을 둔다.⁴⁶⁾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⁴⁷⁾

신약성경에는 ‘용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ἀφιένι(apiemi)부터 ‘죄를 풀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ἀπολύω(apollo)까지 용서에 관한 단어가 145회나 언급되고 있으며, 주기도문 역시 용서가 기도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⁴⁸⁾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14:7, 롬5:1), 기쁨을 얻게 되었으며(요16:20),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다(롬8:1).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원형으로써 인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신다(골2:13, 엡4:32, 롬2:1). 따라서 용서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

46)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2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193; 이종록, “용서 어휘연구”,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 문화」 제5집(1996): 30-60.

47) J. Gladson, “Higher than the Heavens: Forgiveness in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1992): 125-135.

48) R. D. Enright, D. L. Eastin, S. Golden, I. Sarinopoulos, & S. Freedman, “Interpersonal Forgiveness within the Helping Professions: An Attempt to Resolve Difference of Opinion,” *Counseling and Values* 36 (1992): 10-11.

하시며 진정한 회개도 용서를 전제로 삼고 있음을 본다.⁴⁹⁾

둘째, 용서의 신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인 관계적 용서와 신적인 용서의 상호관련성에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맥락을 떠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용서, 즉 대인 용서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⁵⁰⁾ 따라서 M. Rubio는 인간의 모든 용서경험은 용서의 궁극적인 근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¹⁾

용서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용서를 죄와 악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죄는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악이고 가해자에게는 도덕적 악이다. 용서는 이러한 악으로부터 죄인(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을 자유롭게 해주며 변화와 재창조를 하게 한다. 이 외에도 용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O. Rowe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대인관계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 또는 초월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⁵²⁾

신학적 관점에서 용서의 의미를 정리하면, 용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탕감 내지는 면제를 의미한다. 즉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모방하여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용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탕감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인간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49) M. H. Padovani, *Healing Wounded Emotions: Overcoming Life's Hurts* (New London, CT.: Twenty-Third Publication, 1988), 34-41.

50) J. Patto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42.

51) M. Rubio, "The Christian Virtue of Forgiveness," *Concilium* 184(1986): 80-94.

52) J. O. Rowe, S. Halling, E. Davies, M. Leifer, D. Powers, & J. von Bronkhurst, "The Psychology of Forgiving Another: A Dialogal Research Approach," in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eds. R. S. Valle & S. Halling (New York: Plenum Press, 1989), 233-234.

② 용서의 심리학적 의미

용서의 심리학적 정의는 용서를 연구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용서를 하는 주체 즉,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용서의 의미가 다르고, 용서하는 대상에 따라서 대인용서, 자기용서, 상황용서 등으로 나뉘고, 용서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고 있다.

A. Gassin⁵³⁾은 용서의 심리적 의미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사고, 감정, 행동 대신에 긍정적 사고, 감정,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E. McCullough⁵⁴⁾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행동' 이라 했다. 본질적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M. Trainer⁵⁵⁾는 용서를 “대인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고통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 심리적응기제로서 분노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더불어 관계 향상을 수반하는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변화”라고 했다. 그리고 Nelson은 용서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행동, 태도, 정서적 변화의 정도에 따라 무관심한(detached), 제한된(limited), 완전한(full) 용서로 구분하였고, Veenstra는 가해자 발생 후 대인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용서방식에 대해서 가해를 무시하는 것(overlooking), 가해를 변명하는 것(excusing), 가해를 눈감아주는 것(condoning), 가해를 봐주는 것(pardoning), 가해자에게 불평하지 않는 것, 가해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⁵⁶⁾ 그러므로 용서가 인지적, 정서적 변화라고 한데 반해 최근 용서에 대한 이해

53) E. A. Gassin,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Ph.D. diss., Wisconsin Madison University, 1995), 127–136.

54) M. E. McCullough,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000): 43–55.

55) M. Trainer, “Forgiveness: Intrinsic, Role-Expedient, in the Context of Divorce”(Ph.D. diss., Boston University, 1981), 5–56.

56) 김광수, “용서모델과 청소년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제5권 1호(1997): 160–163.

는 가해자에 대한 사고, 감정, 행동의 복합적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용서에 관한 현상적 관심은 1930년대 미국과 유럽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목회상담학에서 용서를 다루게 된 것은 1952년 Andras Angyal의 연구부터 이다.⁵⁷⁾ 하지만 용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다. 1984년 신학자로서 심리학적 연구를 시도하게 된 Lewis Smedes를 필두로 1980년대에 미국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용서에 관한 논문은 약 40여편이며,⁵⁸⁾ 1990년대 이후로는 매년 수 십편에서 수 백편에 이르게 되었다.⁵⁹⁾

한국에서 용서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이며, 경험적 연구는 1990년부터 본격화 되었음을 본다. 한국의 용서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주제들을 보면, 용서 발달 연구⁶⁰⁾를 필두로 시작하여 용서의 개념과 의미구조 분석,⁶¹⁾ 한국인 용서척도를 개발하는 연구,⁶²⁾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용서 프로그램 효과 연구⁶³⁾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앙성숙도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회복탄력성과

57) Michael E. McCullough, Kenneth I. Pargament & Carl E. Thoresen,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in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s.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New York: Guilford, 2000), 4.

58) Everett L. Worthington, "Initial Question About the Art and Science of Forgiveness," in *Handbook of Forgiveness*, ed. E. L. Worthington (New York: Routledge, 2005), 1.

59) 오오현,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287-303.

60) 오영희, "용서의 발달: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제4권(1990): 247-273.

61) 이경순, "용서: 현상학적 접근", 한국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 제11권 3호(2002): 388-397.

62) 오영희,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규준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7권 (2012): 41-54.

63) 김은설, "자기주도적 용서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불안전 애착을 가진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제24권 4호(2010): 1069-1088.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 경기 및 충남, 경북, 전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부에 출석한 기독교 대학생과 일반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되, 지역을 고려하고 비율을 안배하여 확률표본 추측방식에 의해 무작위 표집방식을 적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25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전체 표집 인원은 21개 교회 410명과 7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원 120명(서울 2개교, 경기 2개교, 충남 1개교, 경북 1개교, 전남1개교)으로 실시되었으며, 불성실하고 손상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10부를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구성과 타당도 및 신뢰도

(1) 신앙성숙도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신앙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Basset 등⁶⁴⁾이 개발한 ‘기독교인의 신앙 척도(The Shepherd Scale)’를 김연진⁶⁵⁾이 번안하고, 김성중⁶⁶⁾에 의해 재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Basset

64) R. L. Basset, R. D. Sadler, E. E. Kobischen, D. M. Skiff, R. D. A. Merrill, B. J. Twater, & P. W. Livermore, “The Shepherd Scale: Sepa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 (1981): 335–351.

65) 김연진,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정도에 따른 이타성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61–65.

66) 김성중,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실현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57–63.

등이 신앙성숙을 신앙차원(1-13번 문항)과 행동차원(14-38문항)으로 구분하였으나, 김성중은 신앙고백성, 교회생활성, 사회생활성의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신앙성숙도의 하위척도 및 문항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김성중의 논문에서 사용된 척도는 총 38문항으로 된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어 38점에서 152점까지 점수가 분포하게 되어 있으나, 본 논문은 각 문항의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오되 대신 척도를 5점 Likert척도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신앙심 척도는 38점에서 190점까지 분포하게 된다. 한편, 재구성된 신앙성숙도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921로 나타났으며 하위 항목들의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다.

(2)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2009년에 개발한 YKRQ-27을 허윤영⁶⁷⁾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3가지 형태(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9가지 유형(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소통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Cronbach's α 는 .913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다.

(3) 용서척도

본 연구의 용서척도는 Enright 등(1991)⁶⁸⁾이 고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67) 허윤영,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 한 부모 가정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12), 12-68.

68) R. D. 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eds. W. M. Kurtines & J. Gewirtz (Hillsdale, NJ.: Erlbaum, 1991), 123-152.

거친 용서심리검사(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EFI)를 박종효 (2002)⁶⁹⁾가 변안하여 사용한 용서심리 검사지(EFI-K)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서심리검사의 총 문항은 30문항으로 인지요인, 정서요인, 행동요인으로 나뉘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Cronbach's α 는 .95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분석 기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적용된 주요 통계기법은 PASW(SPSSWIN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검증을 위해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구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표 1> 조사도구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신앙 성숙도	신앙고백성	1,2,3,4,5,6,7,8,9,10,11,12,13,34,35,36	16	.944
	교회생활성	14,20,21,22,23,24,25,26,27,29,30,31,32,33,37,38	16	.933
	사회생활성	15,16,17,18,19,28	6	.783
	소계		38	.921

69) 박종효,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20권 1호(2006): 265-282.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통제성	원인분석력	1,2,3	3	.787
	감정통제력	4,5,6	3	.232
	충동억제력	7,8,9*	3	.703
회복탄력성	긍정성	10*,11,12*	3	.745
	생활만족도	13,14,15	3	.853
	낙관성	16,17,18	3	.765
사회성	관계성	19*,20*,21*	3	.832
	소통능력	22,23,24	3	.762
	공감능력	25,26,27	3	.812
소계			27	.913
용서	정서	1*,2,3*,4,6*,7,8*,9,10*	10	.896
	인지	11*,12,13*,14,15*,16,17,18*,19,20*	10	.884
	행동	21,22*,23,24*,25,26*,27,28*,29,30*	10	.921
	소계		30	.954

* 역채점 문항

3.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비율은 여성 290명(56.86%)이 남성 220명(43.14%)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각 변인 간의 차이분석에서 신앙성숙도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회복탄력성에서는 남자 평균(M=3.813)과 여자 평균(M=3.581)이 유의미한 차이(F=2.848, P<.01)를 보이고 있으

며, 용서에서도 남자 평균(M=4.032)과 여자 평균(M=3.871)이 유의미한 (F=2.552, P<.05) 차이를 보였다.

둘째, 학년별 각 변인 간의 차이에서 4학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았다. 하지만 회복탄력성(M=4.581, F=4.321,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신앙성숙도(M=3.858, F=2.672)와 용서(M=4.102, F=2.832)에서는 무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전공별 각 변인 간의 차이에서 예체능계열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앙성숙도(M=4.426, F=2.671, P<.05)와 용서(M=4.582, F=2.714,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회복탄력성(M=3.842, F=1.689)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신앙기간에 따른 각 변인 간의 차이에서 10년 이상의 평균이 신앙성숙도(M=4.368, F=6.174, P<.001)와 용서(M=3.312, F=2.714, P<.0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회복탄력성에서는 모태신앙(M=3.756, F=3.045, p<.05)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예배출석 횟수 각 변인 간의 차이에서 매주2회 이상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앙성숙도(M=4.532, F=17.842, P<.001), 회복탄력성(M=4.561, F=3.332, P<.05), 용서(M=4.175, F=26.24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의 차이분석

구분 (N=510)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		
		M	SD	F	M	SD	F	M	SD	F
성별	남(220)	4.274	.714	1.165	3.813	.721	2.848**	4.032	.724	2.552
	녀(290)	4.352	.586		3.581	.662		3.871	.636	
학년	1학년(215)	3.678	.753	2.673	4.392	.671	4.321*	3.873	.684	2.832
	2학년(135)	3.674	.765		4.573	.574		4.051	.635	
	3학년(92)	3.780	.723		4.572	.584		4.078	.674	
	4학년(68)	3.858	.642		4.581	.643		4.102	.691	

구분 (N=510)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		
		M	SD	F	M	SD	F	M	SD	F
전공	인문사회계열(220)	4,367	.636	2,671 *	3,694	.765	1,689	4,512	.641	2,714 *
	자연계열(166)	4,227	.654		3,621	.858		4,383	.696	
	예체능계열(73)	4,426	.641		3,842	.703		4,582	.567	
	자율전공(무)(51)	4,132	.672		3,512	.683		4,254	.672	
신앙 기간	모태신앙(272)	4,366	.651	6,174 ***	3,756	.778	3,045 *	3,956	.421	3,312 **
	1년이하(45)	3,672	.674		2,946	.554		3,621	.412	
	1-5년(86)	4,268	.586		3,516	.745		3,936	.432	
	10년이상(107)	4,368	.614		3,684	.726		4,012	.412	
예배 출석 횟수	한달에 1회(50)	3,551	.646	17,842 ***	4,153	.531	3,332 *	3,865	.815	26,242 ***
	2주에 1회(55)	3,471	.531		4,342	.712		4,213	.586	
	매주1회(189)	4,246	.495		4,412	.654		4,823	.723	
	매주2회이상(211)	4,532	.464		4,561	.626		5,175	.645	

* P<.05 ** P<.01 ***P<.001

2)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 간의 상관분석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성숙도 및 회복탄력성과 용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신앙성숙도 하위요인(신앙고백성, 교회생활성, 사회생활성) 가운데, 신앙고백성과 용서의 하위요인(정서, 인지,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r=.276-.376)로 나타났고, 교회생활과 용서는 (r=.283-.294), 사회생활과 용서는 (r=.266-.34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앙성숙도와 용서의 상관관계는 (r=.266-.376)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소통능력, 공감능력)과 용서 하위요인(정서, 인지, 행동) 가운데 원인분석력과 용서와 상관관계는

($r=.141-.225$) 감정통제력과 용서($r=.221-.287$), 충동억제력과 용서($r=.216-.248$), 감사하기와 용서는($r=.313-.394$)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용서($r=.221-.281$), 낙관성과 용서($r=.237-.322$), 관계성과 용서($r=.267-.342$), 소통능력과 용서($r=.321-.341$), 공감능력과 용서는($r=.306-.362$)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복탄력성과 용서의 상관관계는 ($r=.141-.394$)로 $P<.01$ 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신앙고백성과 회복탄력성 상관관계는($r=.208-.334$) 교회생활성과 회복탄력성($r=.187-.317$), 사회생활성과 회복탄력성은($r=.214-.355$)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r=.187-.355$)로 $P<.01$ 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 간의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신앙성숙도	신앙고백성 1	1.000														
	교회생활성 2	.212**	1.000													
	사회생활성 3	.248***	.221**	1.000												
회복탄력성	원인분석력 4	.245***	.187**	.248***	1.000											
	감정통제력 5	.292***	.217**	.216**	.291***	1.000										
	충동억제력 6	.237**	.247***	.214**	.224**	.357***	1.000									
	감사하기 7	.208**	.302***	.221**	.228**	.305***	.316***	1.000								
	생활만족도 8	.301***	.310***	.327***	.221**	.308***	.262***	.421***	1.000							
	낙관성 9	.333***	.247***	.321***	.234**	.312***	.273***	.351***	.315***	1.000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회복탄력성	관계성	10	.334***	.211**	.351***	.272***	.254***	.312***	.372***	.371***	.271***	1.000				
	소통능력	11	.242***	.317***	.355***	.254***	.273***	.321***	.321***	.412***	.313***	.341***	1.000			
	공감능력	12	.316***	.214**	.341***	.211**	.284***	.272***	.361***	.362***	.321***	.421***	.321***	1.000		
용서	정서	13	.276***	.294***	.266***	.141**	.287**	.216**	.394***	.221**	.322***	.288***	.341***	.362***	1.000	
	인지	14	.306***	.283***	.342***	.225**	.221**	.246***	.346***	.266***	.237**	.267***	.341***	.321***	.267***	1.000
	행동	15	.376***	.291***	.288***	.185**	.248***	.248***	.313***	.281***	.271***	.342***	.321***	.306***	.376***	.312***

** P<.01 ***P<.001

3)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용서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신앙성숙도 하위요인인 신앙고백성, 교회생활성, 사회생활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용서의 하위요인인 정서, 인지, 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신앙성숙도 하위요인인 신앙고백성, 교회생활성, 사회생활성을 투입하여 용서의 정서(F=102.648, p<.001), 인지(F=20.837, p<.001), 행동(F=39.574, p<.001)에서 회귀 모형을 세우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앙성숙도가 용서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신앙성숙도는 용서의 정서에 대해 R²가 .542(adj. R²=.527)로 54%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VIF<12.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신앙성숙도의 하위요인은 신앙고백(β=.052, p<.001), 교회생활(β=.159, p<.001), 사회생활(β=.076, p<.05)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에는 신앙성숙

도 R²가 .224(adj. R²=.221)로 2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VIF<12.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신앙성숙도의 하위요인은 신앙고백(β =.201, p<.001), 교회생활(β =.143, p<.01), 사회생활(β =.106, p<.05)로 나타났다. 셋째, 행동에서는 신앙성숙도 R²가 .332(adj. R²=.323)으로 33%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VIF<12.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앙성숙도의 하위요인은 신앙고백(β =.186, p<.001), 교회생활(β =.137, p<.01), 사회생활(β =.115, p<.0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용서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용서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자원과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표 4〉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용서에 미치는 효과

변인		용서											
		정서				인지				행동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신 앙 성 숙 도	신앙고백	.153	.052	4.061***	1.328	.241	.201	5.834***	1.075	.194	.186	4.175***	1.287
	교회생활	.163	.159	4.345***	1.264	.197	.143	2.782**	1.474	.234	.137	3.341**	1.162
	사회생활	.018	.076	2.356*	1.061	.163	.106	2.423*	1.062	.146	.115	2.878**	1.051
	R	.724				.468				.564			
	R ²	.542				.224				.332			
	adj R ²	.527				.221				.323			
	F	102.648 ***				20.837***				39.574***			

* P<.05 ** P<.01 ***P<.001

4)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인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소통능력, 공감능력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용서의 하위요인인 정서, 인지, 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소통능력, 공감능력을 투입하여 용서의 정서($F=31.564, p<.001$), 인지($F=35.652, p<.001$), 행동($F=26.321, p<.001$)에서 회귀모형을 세우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용서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회복탄력성은 용서의 정서에 대해 R^2 가 .302(adj. $R^2=.286$)으로 30%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VIF<12.0$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원인분석력($\beta=.121, p<.05$), 감정통제력($\beta=.204, p<.001$), 충동억제력($\beta=.171, p<.001$), 감사하기($\beta=.208, p<.001$), 생활만족도($\beta=.271, p<.001$), 낙관성($\beta=.241, p<.001$), 관계성($\beta=.321, p<.001$), 소통능력($\beta=.302, p<.001$), 공감능력($\beta=.331, p<.001$)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용서의 인지에 대해 R^2 가 .297(adj. $R^2=.274$)로 2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VIF<12.0$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원인분석력($\beta=.237, p<.001$), 감정통제력($\beta=.132, p<.01$), 충동억제력($\beta=.092, p<.05$), 감사하기($\beta=.287, p<.001$), 생활만족도($\beta=.082, p<.05$), 낙관성($\beta=.168, p<.001$), 관계성($\beta=.265, p<.001$), 소통능력($\beta=.172, p<.001$), 공감능력($\beta=.164, p<.001$)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용서의 행동에 대해 R^2 가 .294(adj. $R^2=.283$)로 2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VIF<12.0$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원인분석력($\beta=.149, p<.001$), 감정통제력($\beta=.154, p<.001$), 충동억제력($\beta=.081, p<.05$), 감사하기($\beta=.301, p<.001$), 생활만족도($\beta=.133, p<.01$), 낙관성($\beta=.165, p<.001$), 관계성($\beta=.265, p<.001$), 소통능력($\beta=.137, p<.01$), 공감능력($\beta=.205, p<.0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용서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용서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과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표 5〉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효과

변인		용서											
		정서				인지				행동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회 복 탄 력 성	원인분석력	.126	.121	2.213*	1.051	.192	.237	5.121***	1.281	.161	.149	4.324***	1.268
	감정통제력	.215	.204	4.872***	1.066	.118	.132	2.821**	1.278	.158	.154	4.031***	1.302
	충동억제력	.173	.171	3.634***	1.274	.084	.092	1.957*	1.035	.088	.081	2.189*	1.325
	감사하기	.217	.208	4.961***	1.075	.294	.287	7.435***	1.248	.312	.301	6.213***	1.404
	생활만족도	.231	.271	4.572***	1.458	.145	.082	1.964*	1.045	.140	.133	2.971**	1.251
	낙관성	.256	.241	4.758***	1.032	.216	.168	3.567***	1.312	.212	.165	3.521***	1.316
	관계성	.312	.321	6.241***	1.312	.367	.265	6.385***	1.061	.356	.256	5.753***	1.061
	소통능력	.310	.302	5.356***	1.432	.223	.172	3.544***	1.321	.213	.137	3.142**	1.181
	공감능력	.321	.331	6.473***	1.342	.212	.164	3.432***	1.332	.218	.205	4.643***	1.074
	R	.537				.543				.542			
	R ²	.302				.297				.294			
	adj R ²	.286				.274				.283			
	F	31.564***				35.652***				26.321***			

* P<.05 ** P<.01 ***P<.001

III. 닫는 글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 및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4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인과구조를 밝혔다. 각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차이는 어떠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서 회복탄력성($P<.01$)과 용서($P<.05$)에서 남녀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부정감정을 더 빨리 벗어나며 용서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은경⁷⁰⁾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학년 간에는 4학년이 회복탄력성($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 학년이 주는 의미는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에서는 예체능계열이 신앙성숙도($P<.05$)와 용서($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 이희숙⁷¹⁾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신앙기간에서는 10년 이상이 신앙성숙도($P<.001$)와 용서($P<.0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회복탄력성에서는 모태신앙 $P<.05$ 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예배출석 횟수 각 변인 간의 차이에서 매주2회 이상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앙성숙도($P<.001$), 회복탄력성($P<.05$), 용서($M=45175$,

70) 한은경, "신앙성숙도 및 영적 안녕과 용서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 50-53.

71) 이희숙, "하나님 이미지가 기독교 후기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영적,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2012), 46-48.

$F=26.24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신앙기간과 예배횟수가 영적 · 심리적 안녕감과 용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김연진⁷²⁾ 및 한은경⁷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 및 회복탄력성과 용서의 관계는 어떠한가?’에서 신앙성숙도 및 회복탄력성과 용서의 관계에는 $P<.01$ 이상에서 모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각의 하위변인 상호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앙성숙도 하위변인과 용서의 하위변인의 상관관계가 ($r=.266-.376$, $P<.00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앙성숙도와 용서가 매우 높은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용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의 정서($p<.001$), 인지($p<.001$), 행동($p<.001$)에서 회귀모형을 세우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용서의 증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정수⁷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용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의 정서($p<.001$), 인지($p<.001$), 행동($p<.001$)에서 회귀모형을 세우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가지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이 용서의 정서, 인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하겠다.

72) 김연진,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정도에 따른 이타성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48-51.

73) 한은경, “신앙성숙도 및 영적 안녕과 용서의 관계”, 50-52.

74) 이정수, “신앙성숙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교육목회적 접근”, 21-78.

2.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한국의 기독교 대학생들의 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앙성숙도, 회복탄력성, 용서지수를 높이는데 신앙기간과 예배 참석 횟수가 매우 의미 있는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대학부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신앙훈련과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앙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은 용서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서로 각각의 변수는 상호적으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안녕감 증진과 용서를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성숙과 회복탄력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의 합의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자 양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 간 비교연구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을 통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 또한 시도되기를 바라며, 전문화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연구 또한 실시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 강계남. “신앙성숙척도의 타당도 검증: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제17권 1호 (2004):141-163.
- 강연정.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제18권 (2012): 51-52.
- 강희천. “종교심리학의 연구동향”.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30권 (2002): 353- 391.
- 김광수. “용서모델과 청소년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제5권 1호(1997): 160-163.
- 김은설. “자기주도적 용서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불안전 애착을 가진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24권 4호 (2010): 1069-1088.
- 김주환 · 신우열 · 최민아.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3호(2009): 117-148.
- 김주환.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1.
- 이종록. “용서 어휘연구”.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 문화」 제5집(1996): 30-60.
- 박수정 · 탁진국.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제23권(2014): 1-22.
- 박종효.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20권 1호(2006): 265-282.
- 박종효.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2호 (2003): 301-321.
- 박향숙. “문화권에 따른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 연구 경향 비교 연구”. 서울신대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와 교육」 제13권 (2006):105-134.
- 오영희.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기준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7권(2012): 41-54.
- 오오현.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한국상담학회, 「상

- 담학연구」 제6권 1호(2005): 287-303.
- 이경순. “용서: 현상학적 접근”. 한국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 제11권 3호 (2002): 388-397.
- 이억범.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제17권 (2013): 93-110.
- 이정수. “신앙성숙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교육목회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9.
- 한은경. “신앙성숙도 및 영적 안녕과 용서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
- 홍구화.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용서들: 세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 (2013): 357-372.
- 홍은숙.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학연구」 제41권 2호(2006): 45-67.
- Allport, G. W.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1966): 447-457.
- Basset, R. L., R. D. Sadler, E. E. Kobischen, D. M. Skiff, R. D. A. Merrill, B. J. Twater, & P. W. Livermore, “The Shepherd Scale: Sepa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1981): 335-351.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 1. Eds. W. Kurtines & J. Gewirtz. Hillsdale, NJ.: Erlbaum, 1991.
- Enright, R. D. “Interpersonal Forgiveness Within the Helping Professions: An Attempt to Resolve Difference of Opinion.” *Counseling and Values* 36(1992): 10-11.
- Garnezy, N.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993): 127-136.
- Gassin, E. A.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Ph.D. diss., Wisconsin Madison University, 1995.
- Gladson, J. “Higher than the Heavens: Forgiveness in the Old Testa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1992): 125-135.

- Gu, Q. & Day, C.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 (2007): 1302–1316.
- Jones, L. Gregory. *Embodying Forgiveness: A Theological Analysi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 Luthar, S. 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no. 3(1991): 600–616.
- McCullough, M. E.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000): 43–55.
- Padovani, M. H. *Healing Wounded Emotions: Overcoming Life's Hurts*. New London, CT.: Twenty-Third Publication, 1988.
- Patton, J.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 Rowe, J. O.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New York: Plenum Press, 1989.
- Rubio, M. "The Christian Virtue of Forgiveness." *Concilium* 184 (1986): 80–94.
- Trainer, M. "Forgiveness: Intrinsic, Role-Expedient, in the Context of Divorce." Ph.D. diss., Boston University, 1981.
- Worthington, E. L. & M. Scherer. "Forgiveness is a 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that can Reduce Health Risks and Promote Health Resilience: Theory, Review and Hypotheses." *Psychology and Health* 19, no 3(2004): 385–405.
- Worthington, E. L. "Initial Question About the Art and Science of Forgiveness." In *Handbook of Forgiveness*. Ed. E. L. Worthington. New York: Routledge, 2005.
- Wright, M. O. D., A. S. Masten & A. J. Narayan.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Four Waves of Research on Positive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In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Eds. S. Goldstein & R. B. Brooks (2013): 15–37.

【 Abstract 】

The Effects of Faith Maturity and Resilience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on Forgiveness

Yoon-Sun Oh

Korean Bible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ect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faith maturity and resilience on forgivenes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0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by a questionnaire survey. The statistic analysis of this study employed PASW(SPSSWIN 20.0), and the main methods of statistics were frequency analysis, F-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faith maturity and resilienc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forgiveness. Second,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faith maturity had a positive effect on forgiveness. When the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had higher levels of faith maturity, the degree of its sub-factors and total score of forgiveness were higher. Third,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resil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forgiveness. When the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had higher levels of resilience, the degree of its sub-factors and total score of forgiveness were also higher.

In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faith maturity and resilience have been proved to be effective for enhancing the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forgiveness.

Accordingly, faith maturity and resilience are the important variables for increasing the forgiveness quotient, and each of the variables is reciprocal two-way relations.

Key words: faith maturity, resilience, forgivenes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fluence